‘반의 반 값’ 알뜰여행 “여름 휴가는 전남으로”

‘전남관광플랫폼’ 숙박·관광 할인

강진·장성·완도·영암군도 이벤트

최대 20만원 지역상품권 등 지급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도가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남도숙박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군이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를 마련해 전남에서 ‘반의 반 값 여행’을 즐길 기회가 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벤트를 통해 전남 외에 주소지를 둔 관광객에게 1박당 10만원 이상 결제는 4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5만원 이상은 2만원을 각각 할인한다. 연속 3박의 경우 최대 12만원의 숙박비 할인을 제공한다.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 회원은 1박당 추가로 1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입장료나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 블루투어 할인이벤트’도 실시한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광양 와인동굴, 담양 죽녹원, 구례 섬진강 스카이바이크, 강진 짚트랙, 함평 엑스포공원 VR체험장 등 19개 업체에서 71개 체험상품 티켓 1매 구매 시 1매를 추가 제공한다.

남도숙박과 1+1블루투어 할인 이벤트 참여는 전남관광플랫폼 앱에서 가능하다.

‘워케이션 반값 할인’도 눈길을 끈다.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상품(숙박+체험 프로그램+사무공간 제공)에 대해 1박에 10만원, 2박에 20만원, 최대 3박에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약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예약 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하면 된다.

전남도의 관광상품 할인에 더해 시·군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남도의 맛과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값 여행의 원조 격인 강진군은 ‘반값 여행’ 사업으로 숙박비 포함, 강진에서 지출한 금액의 50% 기준으로 1인 최대 10만원, 2인 최대 20만원을 강진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에서 ‘반의 반 값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한 숙박·관광 할인 이벤트를 마련,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순천 워케이션 센터 내부. 〈전남도 제공〉

장성군은 ‘쏠쏠한 장성여행’ 사업을 추진, 숙박업소와 식당, 카페에서 지출한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지출 금액에 따라 10-19만원은 5만원, 20-29만원은 10만원, 30-39만원은 15만원, 40만원 이상은 최대 20만원을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완도군은 방문 전 ‘완도치유페이’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여행 계획을 제출하면 지출액의 50%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치유페이’(지류상품권 지급 또는 포인트 충전 방식)로 지급한다. 지출 금액에 따라 10-19만원은 5만원, 20-29만원은 10만원, 30-39만원은 15만원, 40만원 이상은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영암군은 ‘영암여행 1+1’ 사업을 통해 이달 말부터 영암군 외 거주자이고 2인 이상 한 팀이 영암에서 10만원 이상 소비했을 경우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 방문은 10만원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3회 방문자에겐 영암 특산품 판매 사이트인 ‘영암몰’에서 사용 가능한 2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오미경 관광과장은 “각종 관광·숙박·체험 할인 상품을 잘 조합하면 전남에서 ‘반값 여행’이 아닌 ‘반의 반 값 여행’이 가능하다”며 “여름철 저렴한 비용으로 남도의 미식을 맛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휴가를 즐기고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 도심 물놀이장·분수 내일부터 가동 잇따라

시민의숲·상무시민공원 등 물놀이장 8곳

수경시설도 15곳…‘여름쉼터’ 인기 기대

광주 도심 속 도시공원 물놀이장이 이번 주부터 일제히 가동을 시작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심 속 물놀이장 8곳과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15곳을 본격 운영한다.

먼저 광주시민의숲과 중외공원(생태예술놀이정원) 물놀이장을 오는 19일부터 8월17일까지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또 상무시민공원과 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22일 개장해 8월17일까지 운영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다.

쌍암근린공원 물놀이장은 26일부터 8월23일까지, 산동교 주변과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는 23일부터 8월21일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2곳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물놀이장은 시설 점검과 청소를 위해 매주 월요일 휴장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또 광주환경공단에서도 광주천 자연 물놀이터를 26일부터 8월2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도심 속 물놀이장 8곳과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15곳을 본격 운영한다. 사진은 물빛공원 폭기분수. 〈광주시 제공〉

모든 물놀이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다.

현장에는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위해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또 매일 수돗물을 교체하고 15일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여름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분수 등 수경시설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바닥분수’는 중외공원·운남공원·일곡제1근린공원 등 7곳에서, 흥겨운 음악과 함께 물줄기가 솟구치는 ‘음악분수’는 양산호수공원과 수완호수공원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물빛공원, 쌍암공원, 두산공원 등 3곳에서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 보기만 해도 더위를 날릴 수 있는 ‘폭기분수’가, 고래실공원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물길’이 조성돼 있다. 평화공원에는 ‘물길’과 함께 시원하게 쏟아지는 ‘벽천분수’를 만날 수 있다.

수경시설은 낮 시간대 위주로 가동될 예정이다. 하루 2-12회, 회당 30분-1시간 가량 날씨와 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다양한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도 실시한다. /변은진 기자

道, 내달까지 농경지 왕우렁이 집중 수거

개체수 증가 차단 월동 피해 최소화

전남도는 17일 “왕우렁이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7-8월을 ‘왕우렁이 집중 수거 기간’으로 지정, 시·군에서 집중 수거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왕우렁이는 친환경 벼농사에서 잡초 방제에 효과적이지만 수거하지 않으면 하천이나 농·배수로 등으로 유출되고 겨울에 월동해 다음 연도에 어린 벼를 갉아먹는 피해로 이어진다.

이에 전남도는 종합대책 중 하나로 7-8월 2개월 동안 농경지와 용배수로 주변 왕우렁이와 우렁이알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자연 생태계 유출과 월동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농업인에게 수거 등 의무사항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7-8월은 왕우렁이 관리 골든타임으로 중간 물떼기 시점에 논 가장자리에 물길을 미리 파두면 왕우렁이가 모이기 때문에 쉽게 수거할 수 있다.

김영석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왕우렁이 활용도 중요하지만 월동 방지 등 피해 예방 차원에서 수거관리가 필요하다”며 “왕우렁이 일제 수거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가 올해 1-2월 논 깊이갈이 등 겨울철 논말리기(1만5천ha) 실시, 왕우렁이 모니터링반과 현장 메신저(105명) 운영, 우심지역 선제 방제 등을 추진한 결과, 월동 왕우렁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양시원 기자

올해 전남 홍역환자 10명 발생…예방접종 당부

전남지역 홍역환자가 올해 최초 발생 이후 4개월만에 1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남도가 홍역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1개월 된 영유아가 모국인 베트남 방문 후 홍역에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전남에서 총 1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명이 해외 유입 사례다.

홍역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MMR 백신 예방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

접종 여부가 불확실하면 출국 4-6주 전 2회 접종하면 된다. 1세 미만 영유아(6-11개월)가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할 경우 무료로 홍역 가속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여행 후 38℃ 이상 고열, 피부발진, 결막염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양시원 기자